

21. 마지막 말씀 -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시 46:9) 주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22. 잠잠하라 - 하나님은 경외로우시며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 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시 46:10)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23. 가벼운 마음 - 사람들은 기독교가 우리로 하여금 의식과 규칙을 이행하게 하여 삶을 무겁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며 함께 걷자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주님, 주님의 명에 메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24. 적절한 시간 - 성경은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잠 18:13) 주님, 제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적절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25. 선택 - 죄는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롬 6:16) 주님, 제가 항상 죄를 경계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26. 삶의 방식 -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삶의 방식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는 도둑에게 지배되는 삶으로 손실과 죽음, 파괴를 가져옵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생명을 얻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 남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27. 사랑의 아버지 - 남성들은 자녀들이 순종하고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요 15:7)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28. 분노 - 어떤 일에 실망하고 상실감과 불의를 느끼면 그것이 쉽게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사람이 내린 결정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높습니다. 분노를 통제하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고 정의를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약 1:20) 주님, 우리의 태도와 감정을 주께 맡겨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29. 위기 - 그리스도인들도 고통과 불치병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면 확실히 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시 23:4)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30. 박해 -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을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요 15:20) 오픈도어즈 연간 감시 목록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박해받는 50 개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게 하소서.

31. 절제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도전에 맞서 어떻게 균형잡힌 삶을 살지 가르쳐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절제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1.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 - 저는 때로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고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안심 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 10:41-42) 주님, 제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를 주셨으니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2. 믿음의 법칙 - 성경을 읽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즉 사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롬 3:27) 주님, 저에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주님과 협력하게 하소서.

3.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하게 말씀을 실천할 수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 일하소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4. 주권 - 주님을 주(主)라고 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눅 6:46) 주님, 제가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主)로 인정하게 하소서.



만날 수 없어도 전할 수 있어요
02-886-5671 / www.twrk.or.kr
Email: twrk@twrk.or.kr

5. 두려움이 없음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로, 어둠의 세력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합니다. 주님, 제가 악을 대적하여 두려움 없이 살게 하소서.

6. 기도의 용사들 -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6 하) 주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7. 성실함 - 성실한 사람이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며 점점 더 성실하게 만드십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잠 10:9) 주님, 남성들이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하소서.

8. 신실함 -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신실해지길 기도하며 스스로 인격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잠 28:20) 주님, 성령께서 저를 가르치시도록 내어드리오니 제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9. 인격 -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진정한 남성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요 15:4) 주님, 남성들이 예수님의 영을 통해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소서.

10. 변화된 삶 - 남성들은 종종 육체의 힘으로 살면서 경건한 인격을 나타내길 원하기 때문에 낙담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맷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갈 2:20) 주님, 남성들이 악하고 깨어진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승리하는 삶을 따르게 하소서.

11. 균형 잡힌 삶 - 아내는 자신을 부드러우면서도 용기 있게 인도할 남편을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 5:22) 주님, 남성들

이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려, 예수님처럼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12. 리더십 - 하나님은 남성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려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헌 2:8) 주님, 남성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성령께서 모든 생각과 의지, 감정을 다스리시길 기대하게 하소서.



13. 모델 -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교제하고 섬겨야 하는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요 13:3-5) 주님,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교만을 저의 마음에서 없애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14. 잔 -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주님, 제가 저의 소원을 주께 아뢰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소서.

15. 아바 - '아바', '아빠'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끓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

소서 하시고"(막 14:36) 주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도록 초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6. 용서 - 십자가 처형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17. 사랑의 돌봄 -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 19:26,27) 주님,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소서.

18. 오늘 -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 주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9. 피 값 -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후회하며 돈을 돌려주고 절망 속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피 값으로 대제사장들은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마 27:9,10) 주님,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의 죄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 영의 눈 -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뜻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시 46:8) 주님, 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